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꽃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4_01

## ARS+CATI

제31차 ARS조사

제16차 CATI조사

www.flowerresearch.com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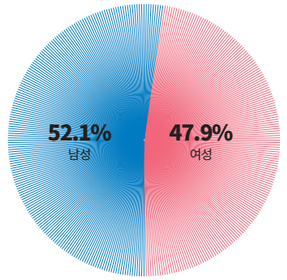
## ARS & CATI

###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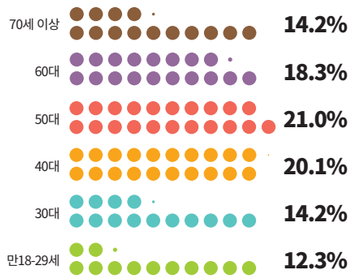
| | |
|---|---|
| 모 집 단 |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1,001명 |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 표집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 조사방법 |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
| 가중방법 |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br>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
| 응 답 률 | 3.5% [총 통화시도 28,533명] |
| 조사기간 | 2023년 3월 31일 ~ 4월 1일(2일간) |
| 조사기관 | (주)여론조사꽃 |

| 응답자 특성 | | 조사완료 사례수(A) | | 가중값 적용 기준(B) | | 가중값배율 |
|---|---|---|---|---|---|---|
| | | 사례수(명) | 비율(%) | 사례수(명) | 비율(%) | (B/A) |
| 전체 | | 1,001 | 100.0% | 1,001 | 100.0% | 1.00 |
| 성별 | 남성 | 522 | 52.1 | 496 | 49.6 | 0.95 |
| | 여성 | 479 | 47.9 | 505 | 50.4 | 1.05 |
| 연령 | 만18-29세 | 123 | 12.3 | 166 | 16.6 | 1.35 |
| | 30대 | 142 | 14.2 | 151 | 15.1 | 1.06 |
| | 40대 | 201 | 20.1 | 182 | 18.2 | 0.91 |
| | 50대 | 210 | 21.0 | 195 | 19.5 | 0.93 |
| | 60대 | 183 | 18.3 | 169 | 16.9 | 0.92 |
| | 70세 이상 | 142 | 14.2 | 138 | 13.8 | 0.97 |
| 지역 | 서울 | 195 | 19.5 | 189 | 18.9 | 0.97 |
| | 인천·경기 | 315 | 31.5 | 319 | 31.9 | 1.01 |
| | 대전·세종·충청 | 102 | 10.2 | 105 | 10.5 | 1.03 |
| | 광주·전라 | 96 | 9.6 | 96 | 9.6 | 1.00 |
| | 대구·경북 | 100 | 10.0 | 98 | 9.8 | 0.98 |
| | 부산·울산·경남 | 148 | 14.8 | 150 | 15.0 | 1.01 |
| | 강원·제주 | 45 | 4.5 | 44 | 4.4 | 0.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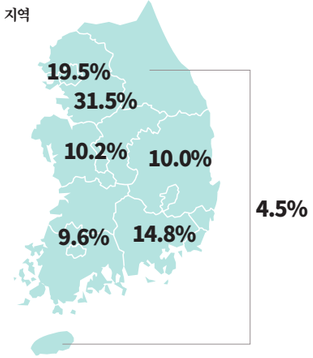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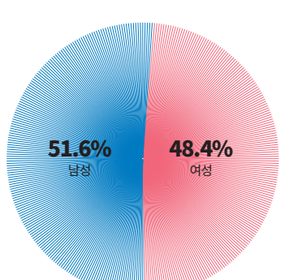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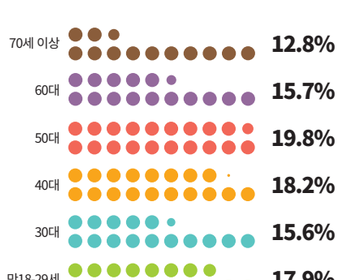
| | |
|---|---|
| 모 집 단 |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1,012명 |
|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
| 표집방법 |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 조사방법 |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
| 가중방법 |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br>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
| 응 답 률 | 15.9% [총 통화시도 6,373명] |
| 조사기간 | 2023년 3월 31일 ~ 4월 1일(2일간) |
| 조사기관 | (주)여론조사꽃 |

| 응답자 특성 | | 조사완료 사례수(A) | | 가중값 적용 기준(B) | | 가중값배율 |
|---|---|---|---|---|---|---|
| | | 사례수(명) | 비율(%) | 사례수(명) | 비율(%) | (B/A) |
| 전체 | | 1,012 | 100.0% | 1,012 | 100.0% | 1.00 |
| 성별 | 남성 | 522 | 51.6 | 502 | 49.6 | 0.96 |
| | 여성 | 490 | 48.4 | 510 | 50.4 | 1.04 |
| 연령 | 만18-29세 | 181 | 17.9 | 167 | 16.5 | 0.92 |
| | 30대 | 158 | 15.6 | 151 | 14.9 | 0.96 |
| | 40대 | 184 | 18.2 | 184 | 18.2 | 1.00 |
| | 50대 | 200 | 19.8 | 198 | 19.6 | 0.99 |
| | 60대 | 159 | 15.7 | 171 | 16.9 | 1.08 |
| | 70세 이상 | 130 | 12.8 | 141 | 13.9 | 1.08 |
| 지역 | 서울 | 192 | 19.0 | 189 | 18.7 | 0.98 |
| | 인천·경기 | 322 | 31.8 | 321 | 31.7 | 1.00 |
| | 대전·세종·충청 | 108 | 10.7 | 107 | 10.6 | 0.99 |
| | 광주·전라 | 104 | 10.3 | 99 | 9.8 | 0.95 |
| | 대구·경북 | 98 | 9.7 | 99 | 9.8 | 1.01 |
| | 부산·울산·경남 | 143 | 14.1 | 152 | 15.0 | 1.06 |
| | 강원·제주 | 45 | 4.4 | 45 | 4.4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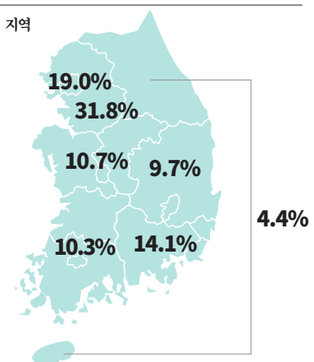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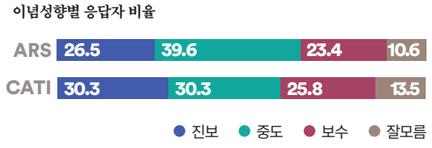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국정지표**

## ARS & CATI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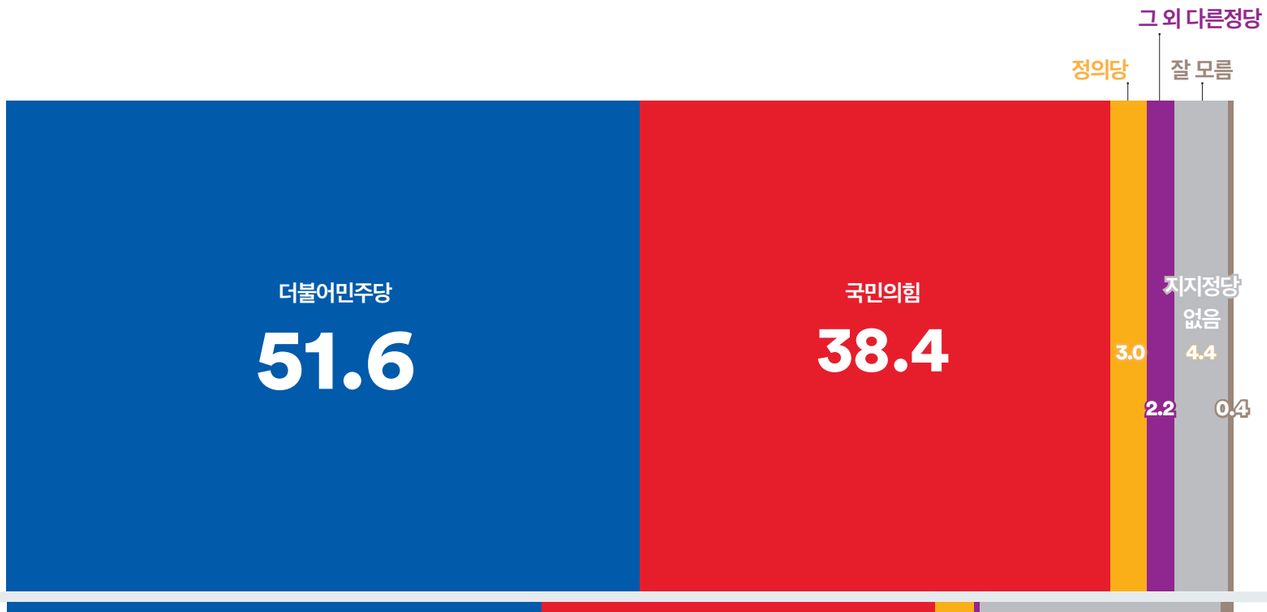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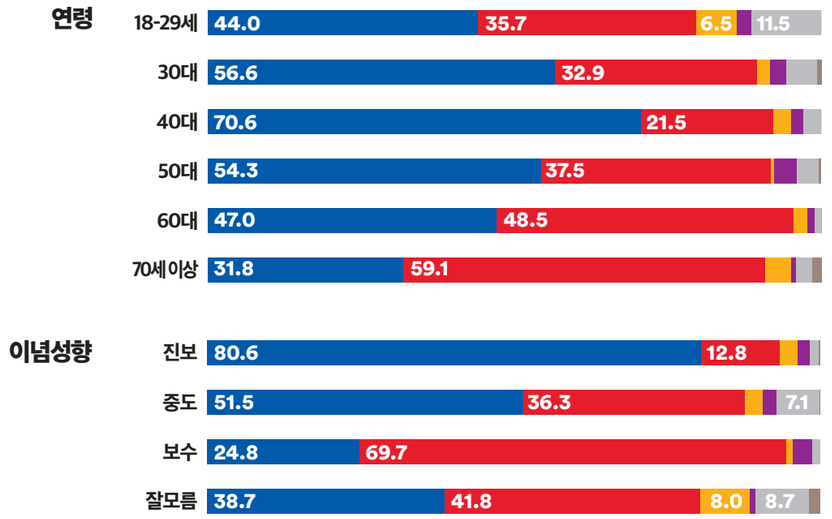
**국정지표**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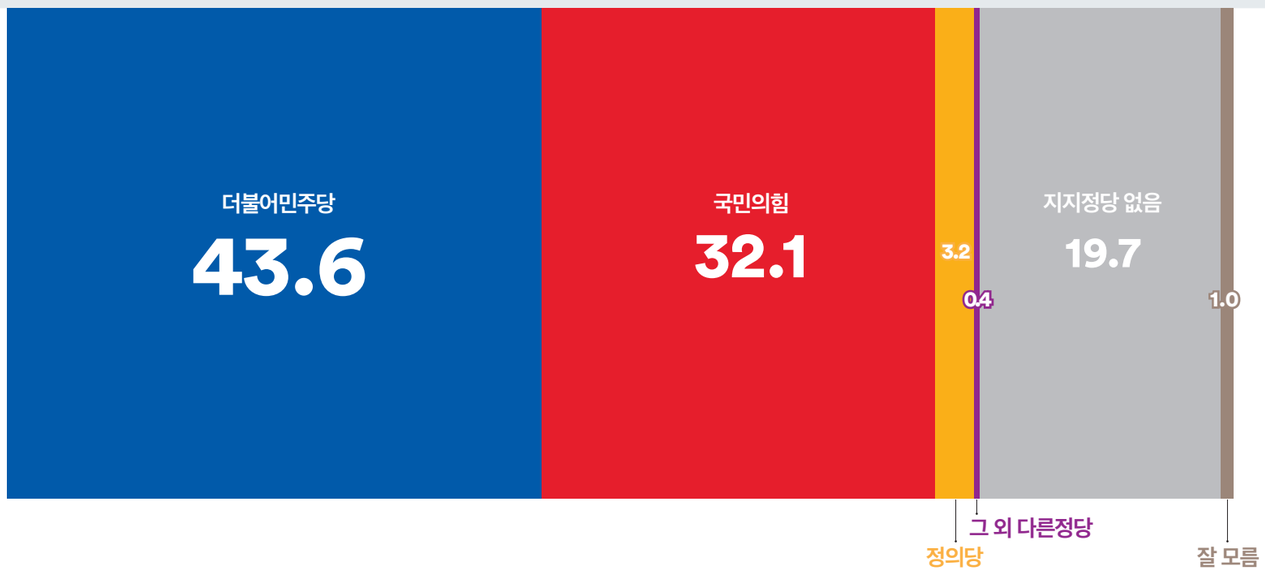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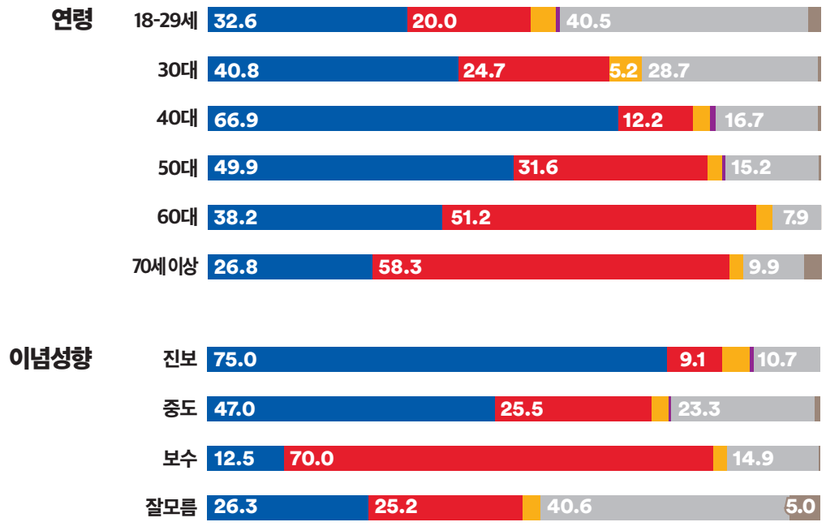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4%p 하락, 국민의힘 2.0%p 상승(격차 13.2%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1%p 상승, 국민의힘 0.4%p 하락(격차 11.5%p)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주에 이어 두 자릿수를 유지,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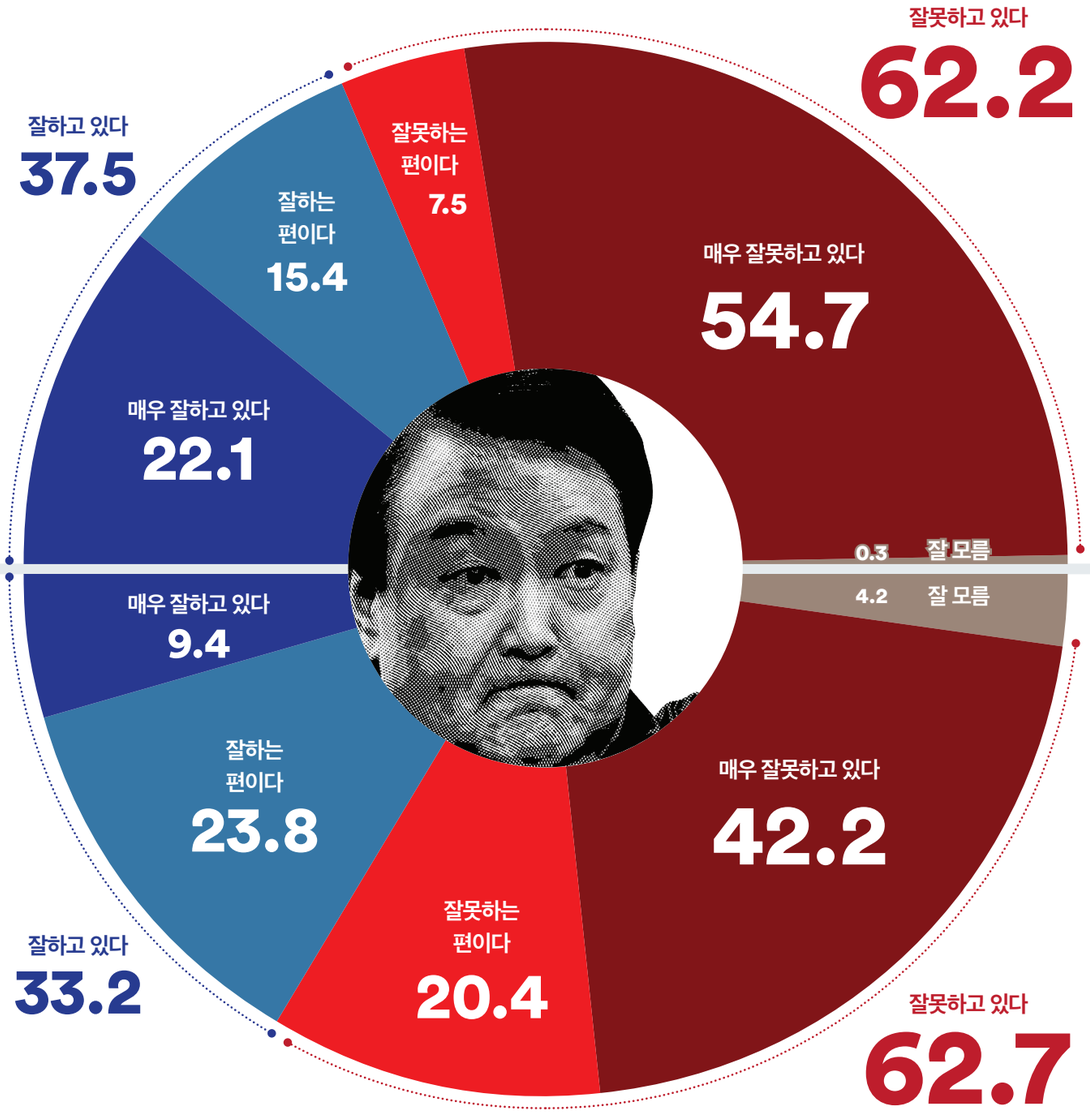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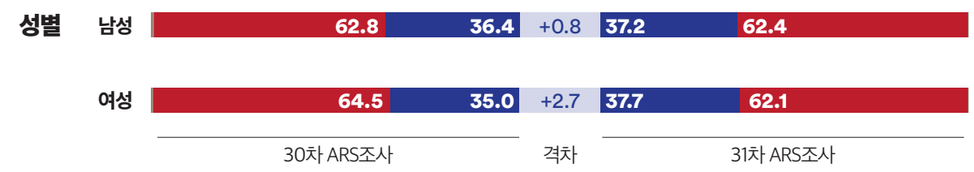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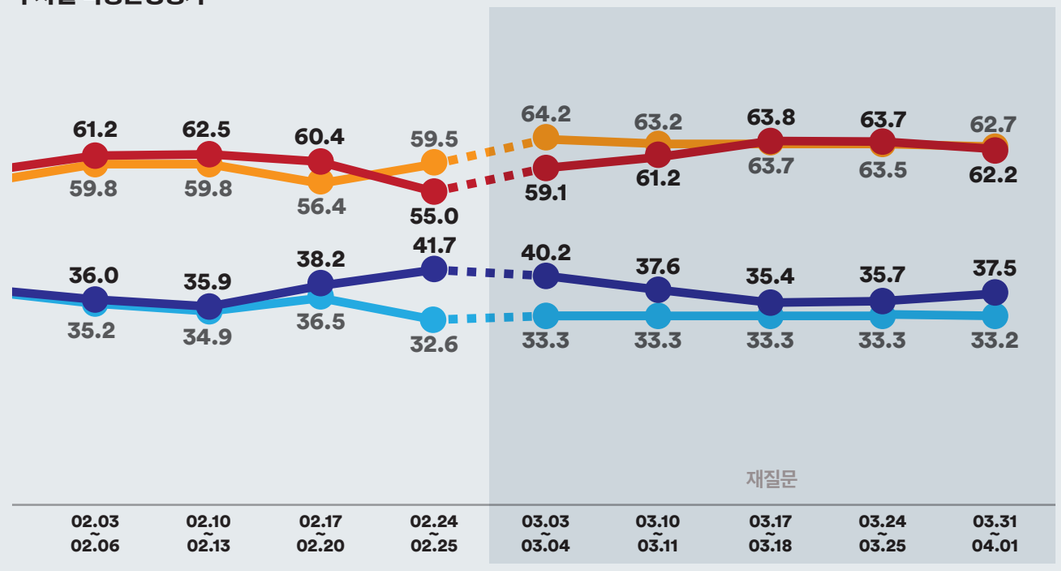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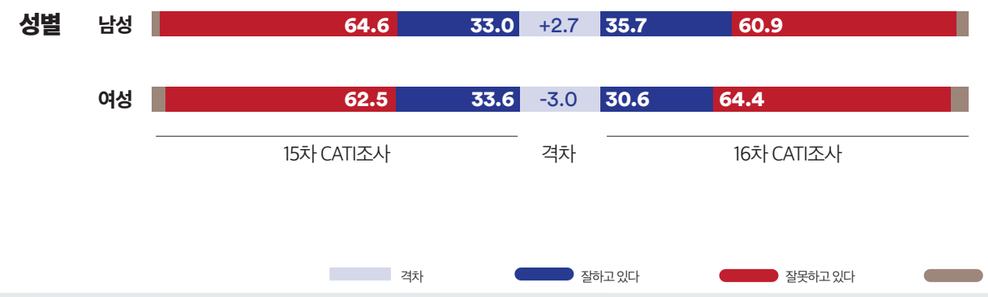

CATI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1.8%p 증가, 부정평가 1.5%p 감소 (격차 24.7%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1%p 감소, 부정평가 0.8%p 감소 (격차 29.5%p)
두 조사 모두 진보층·중도층은 부정 평가 우세, 보수층은 긍정 평가가 우세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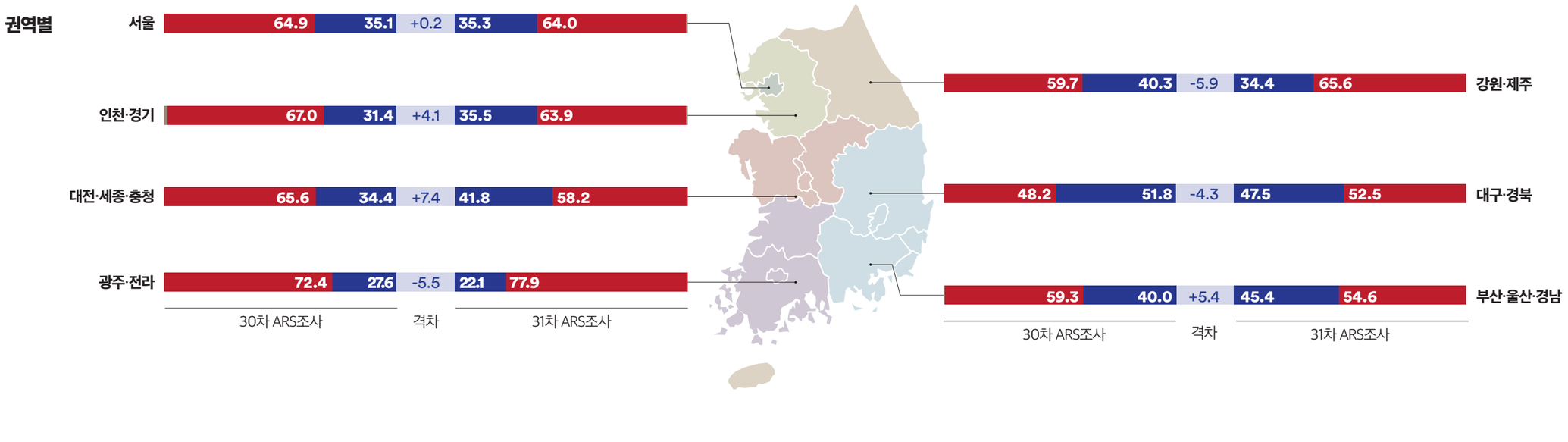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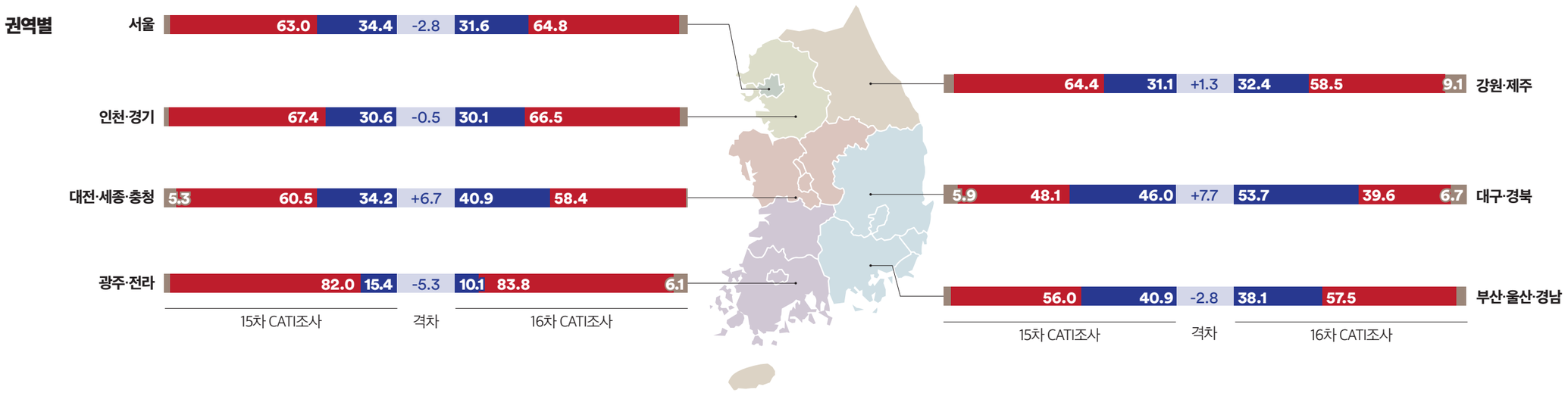
##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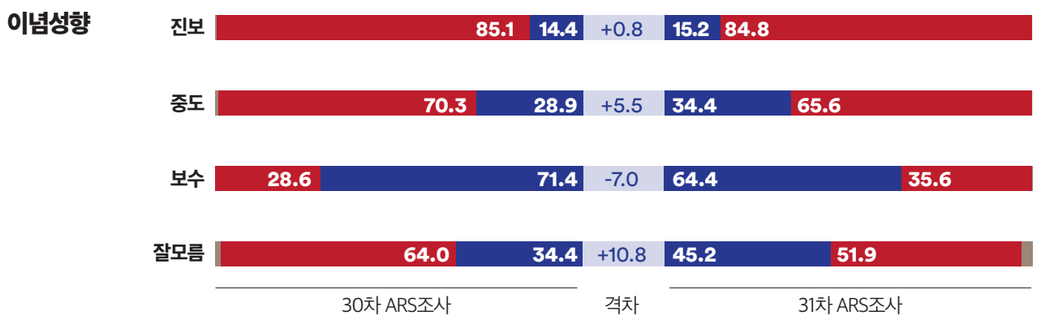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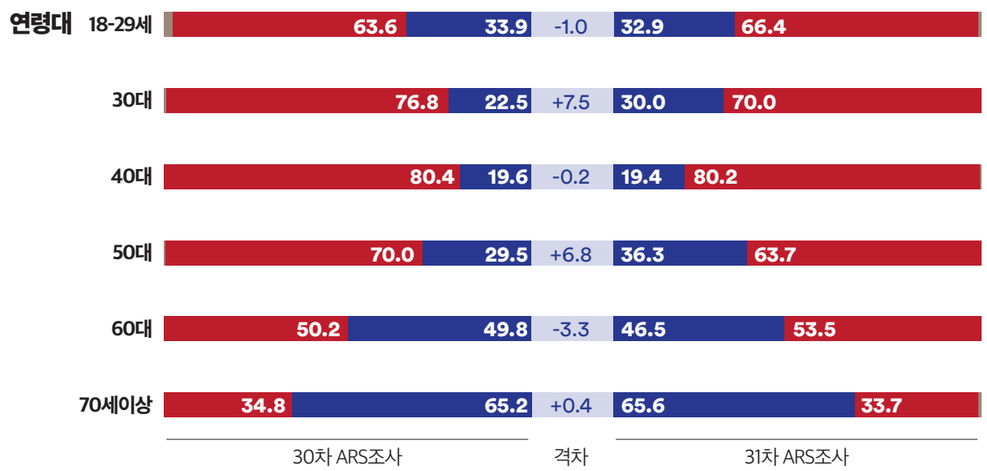
국정지표

##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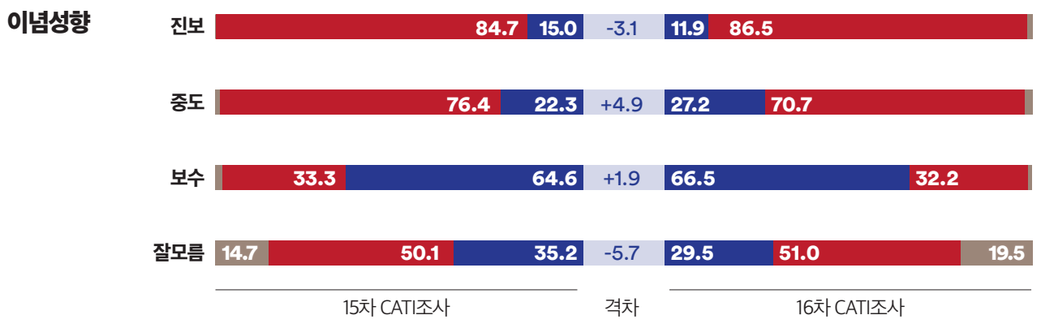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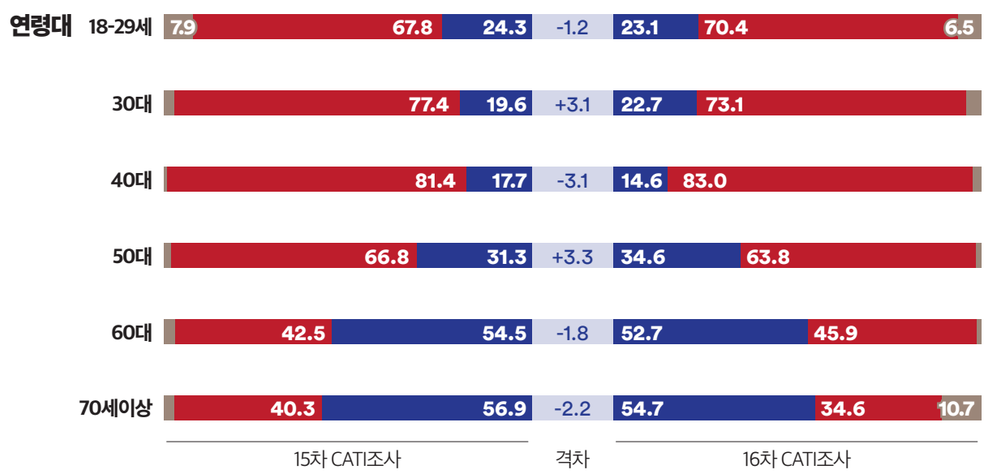
ARS




CATI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 검수완박**

##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한동훈 차출론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국민의힘 총선을 치러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지 물었습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묻고, "헌재의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한동훈 차출론

Q.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한동훈 차출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중심의 총선이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국민의힘에 도움될 것이다 **37.8**

국민의힘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54.6**

| 매우 도움될 것이다 | 어느정도 도움될 것이다 |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 잘 모름 |
|---|---|---|---|---|
| 17.8 | 20.0 | 25.3 | 29.3 | 7.6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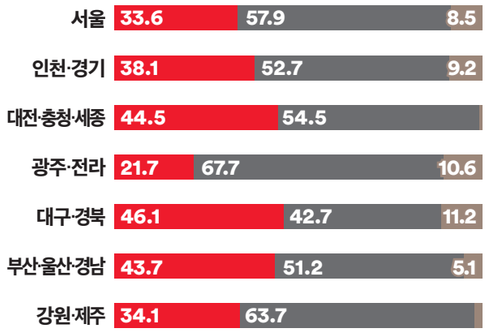
| 매우 도움될 것이다 | 어느정도 도움될 것이다 |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 잘 모름 |
|---|---|---|---|---|
| 12.4 | 22.6 | 30.0 | 19.7 | 15.2 |

국민의힘에 도움될 것이다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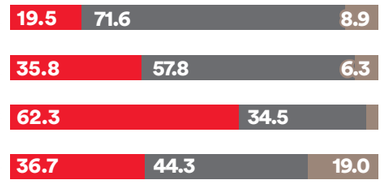
국민의힘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49.7**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정도(ARS는 절반 이상)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란 응답 우세
두 조사의 TK를 제외한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남녀 모두 '도움되지 않을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무당층: ARS(도움 됨 23.4% / 도움 안됨 56.5%), CATI(도움 됨 29.2% / 도움 안됨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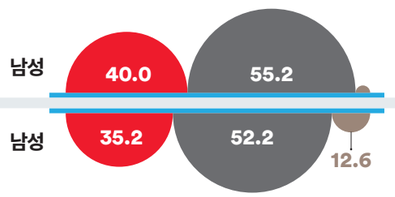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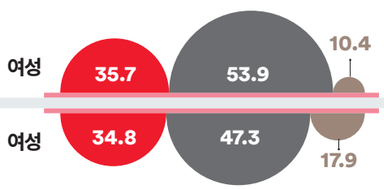



###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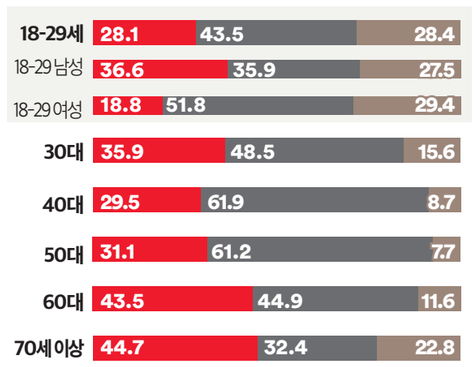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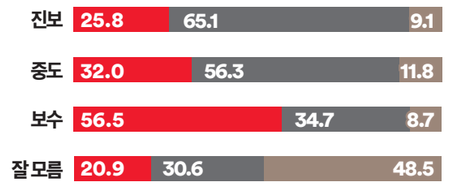



### 연령




### 이념성향




도움될 것 | 도움되지 않을 것 | 모르겠다

인용시 출처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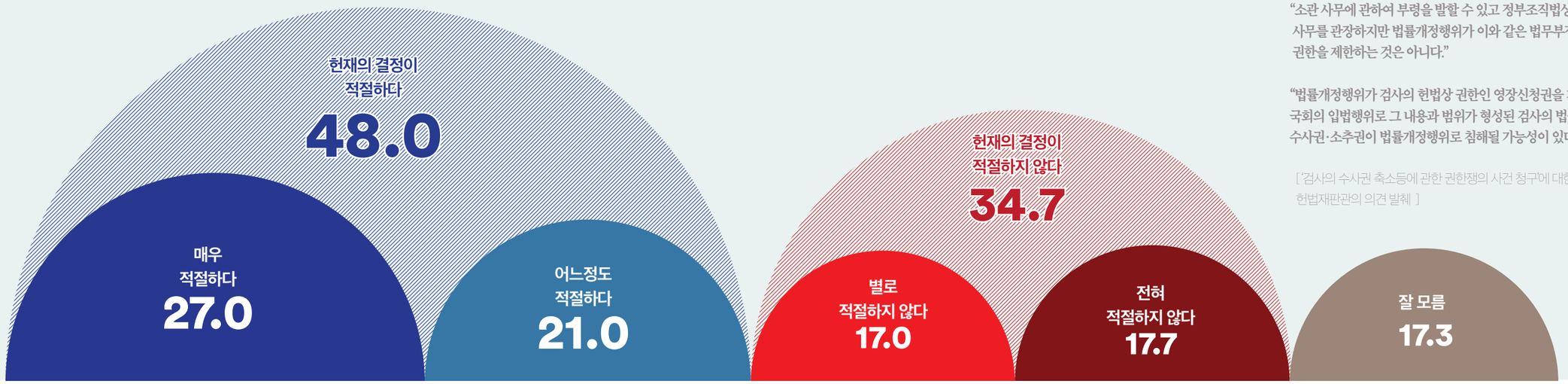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Q. 헌법재판소는 “수사·소추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5명 정도는 ‘헌재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응답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섬
경인지역과 30~50대 응답층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의견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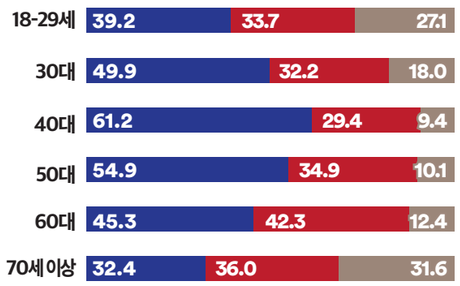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법률개정행위가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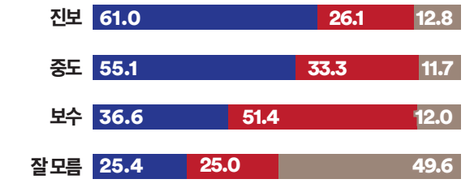
“법률개정행위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수사권·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검사의 수사권 축소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 발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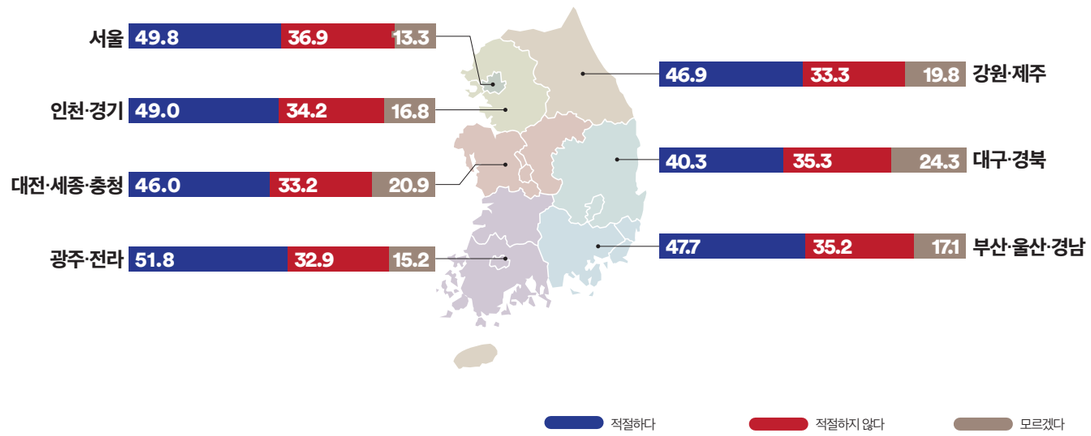
### 연령




### 이념성향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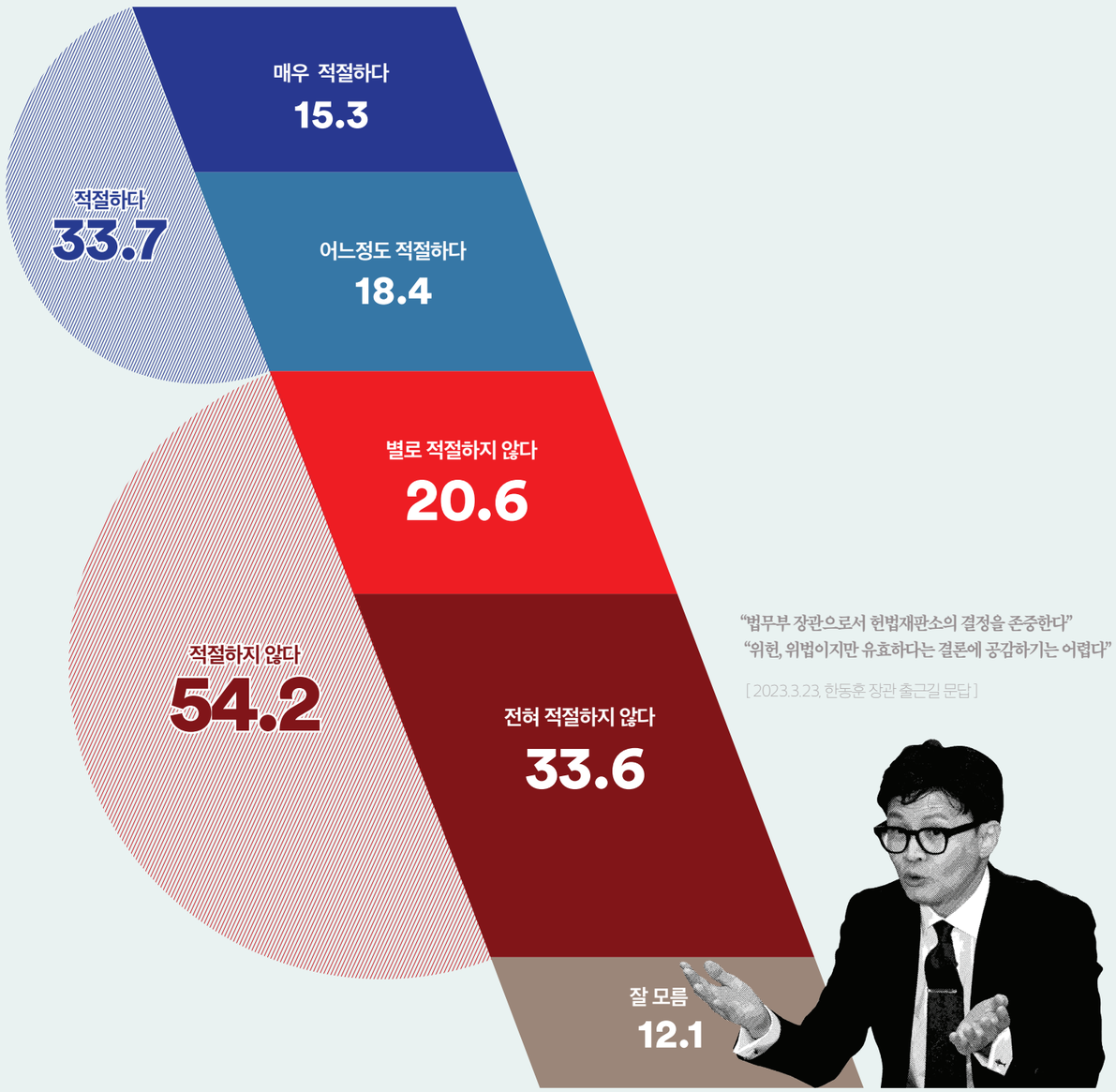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헌재 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

Q.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권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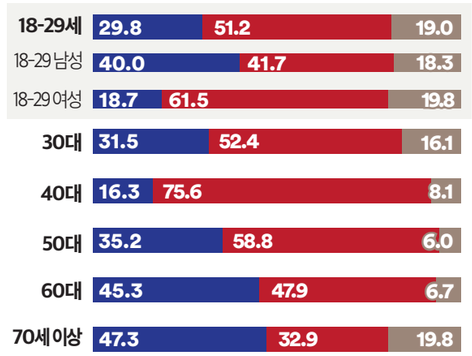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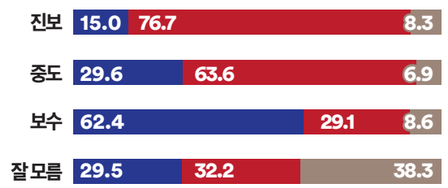
[ 2023.3.23. 한동훈 장관 출근길 문답 ]

10명 중 5명 이상은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적절'의견이 앞섬, 50대 이하 응답층과 수도권과 호남권은 '부적절'의견 우세
헌재 판결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72.7%가 '한 장관의 반응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헌재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한 사람 중에서도 43.0%는 '부적절' 하다고 응답(적절 52.3%)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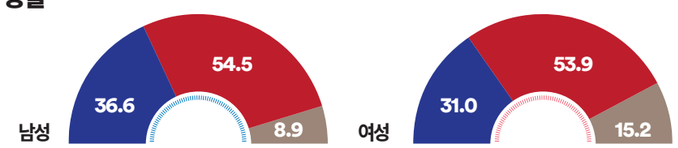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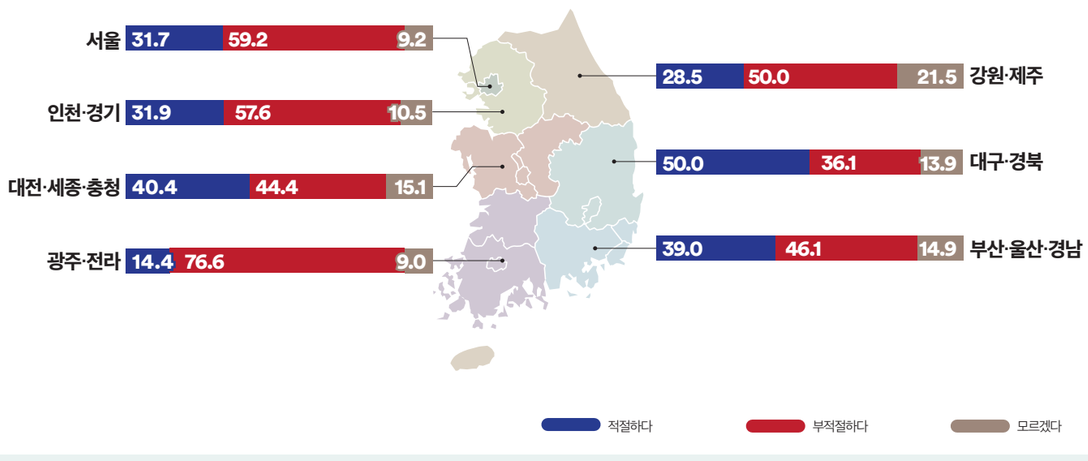

### 이념성향




### 성별




### 권역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대중국 외교•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 미국 국빈방문**

##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대중국 무역 적자의 원인
대중국 외교방향의 변화 필요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윤 정부 대응 방향
혼돈의 외교•안보 라인
미국 국빈 방문 의제
역대 대통령 호감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우리는 대중국 무역 적자 1위국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원인과 우리의 대중국 외교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규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강제징용과 징병에 대한 내용은 희석되어 기술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관과 비서관,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되거나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국가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4월 말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의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대중국 무역적자의 원인

Q. 윤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2023년 1·2월 누적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50억7천400만달러 적자로 대중국 무역 적자국 1위 기록
연간 기준 마지막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1992년 이후 올해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섬
[2023년 3월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CATI

**연령**

| | 윤 정부의 반중노선 |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그 외 다른 이유 | 모르겠다 |
|---|---|---|---|---|
| 18-29세 | 41.6 | 33.0 | 16.3 | 9.1 |
| 30대 | 53.8 | 22.8 | 19.8 | |
| 40대 | 69.5 | 19.4 | 8.0 | |
| 50대 | 57.2 | 23.2 | 12.9 | 6.7 |
| 60대 | 44.1 | 27.0 | 15.6 | 13.4 |
| 70세 이상 | 32.2 | 29.0 | 16.9 | 21.9 |

**이념성향**

| | 윤 정부의 반중노선 |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그 외 다른 이유 | 모르겠다 |
|---|---|---|---|---|
| 진보 | 75.4 | 11.6 | 8.9 | |
| 중도 | 51.2 | 27.6 | 14.6 | 6.6 |
| 보수 | 30.8 | 39.3 | 20.6 | 9.4 |
| 잘 모름 | 30.9 | 22.2 | 15.7 | 31.3 |

**권역**

| | 윤 정부의 반중노선 |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그 외 다른 이유 | 모르겠다 |
|---|---|---|---|---|
| 서울 | 38.9 | 30.0 | 15.4 | 15.7 |
| 인천·경기 | 43.7 | 26.8 | 12.7 | 16.8 |
| 대전·충청·세종 | 38.1 | 33.2 | 13.9 | 14.8 |
| 광주·전라 | 50.5 | 19.7 | 10.6 | 19.3 |
| 대구·경북 | 28.6 | 32.3 | 15.4 | 23.7 |
| 부산·울산·경남 | 42.1 | 23.1 | 13.5 | 21.2 |
| 강원·제주 | 38.5 | 34.1 | | 25.2 |

**성별**

| | 윤 정부의 반중노선 |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그 외 다른 이유 | 모르겠다 |
|---|---|---|---|---|
| 남성 | 39.1 | 31.5 | 15.6 | 13.8 |
| 여성 | 42.8 | 23.9 | 10.5 | 22.8 |

윤 정부의반중노선 ·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 그 외 다른 이유 · 모르겠다

CATI 조사의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ARS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윤 정부의 반중 노선'을 대중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선택
무당층: ARS (반중노선 30.7%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20.1%), CATI (반중노선 29.2%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31.3%)
중도층: ARS (반중노선 51.2%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27.6%), CATI (반중노선 42.8%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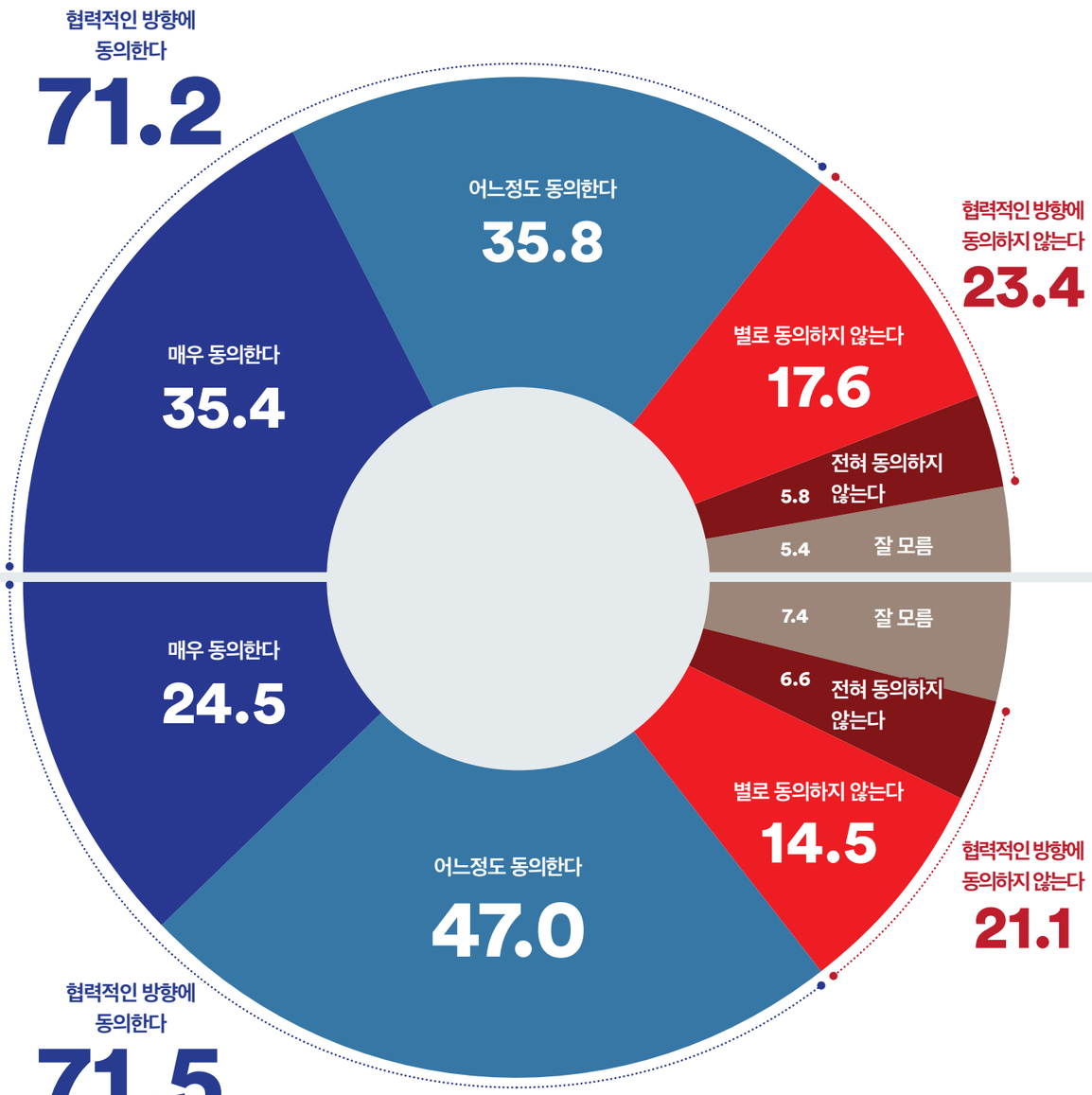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대중국 외교방향의 변화 필요성

Q. 대중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 방향을 협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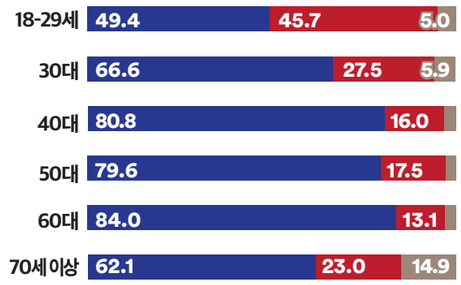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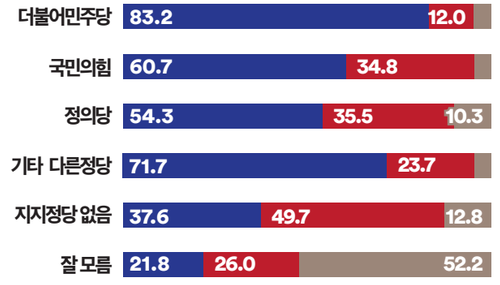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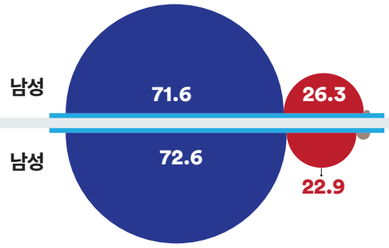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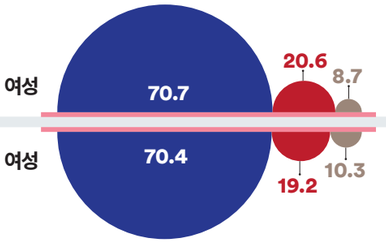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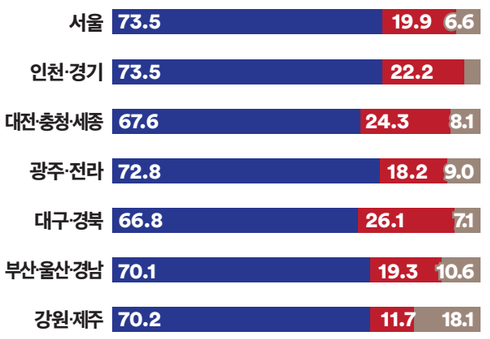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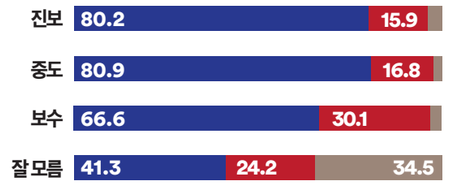

### 성별




### 권역




### 이념성향



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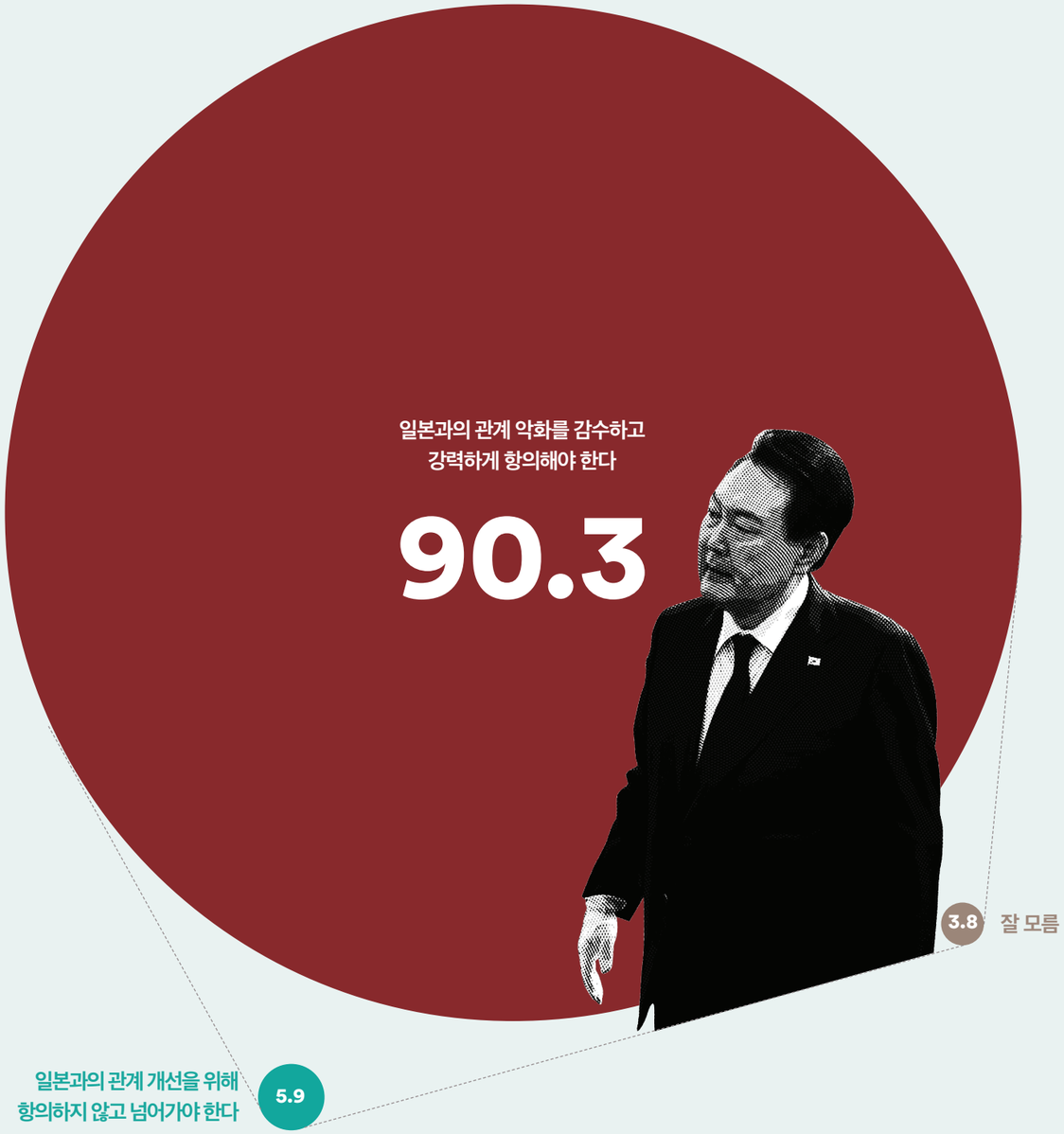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모든 성·연령대·권역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섬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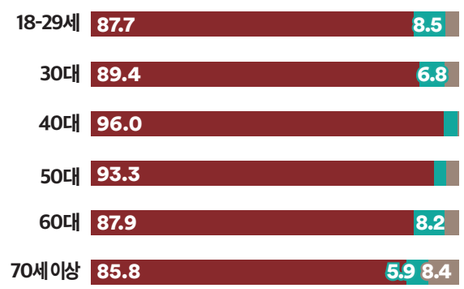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방향

Q.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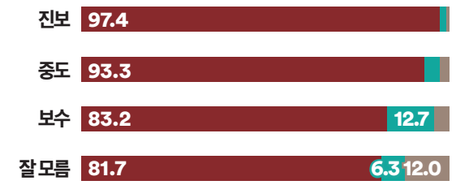



10명 중 9명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응답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 79.4%, 보수층 중 83.2%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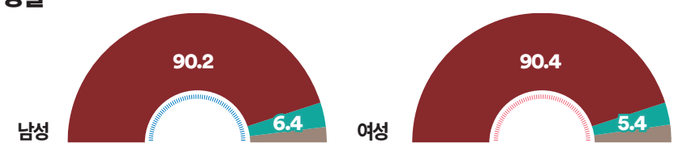
###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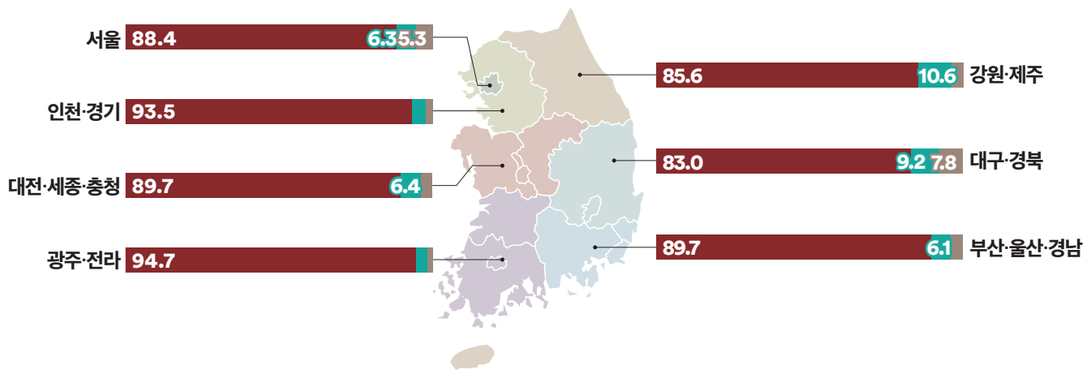

### 이념성향




### 성별




###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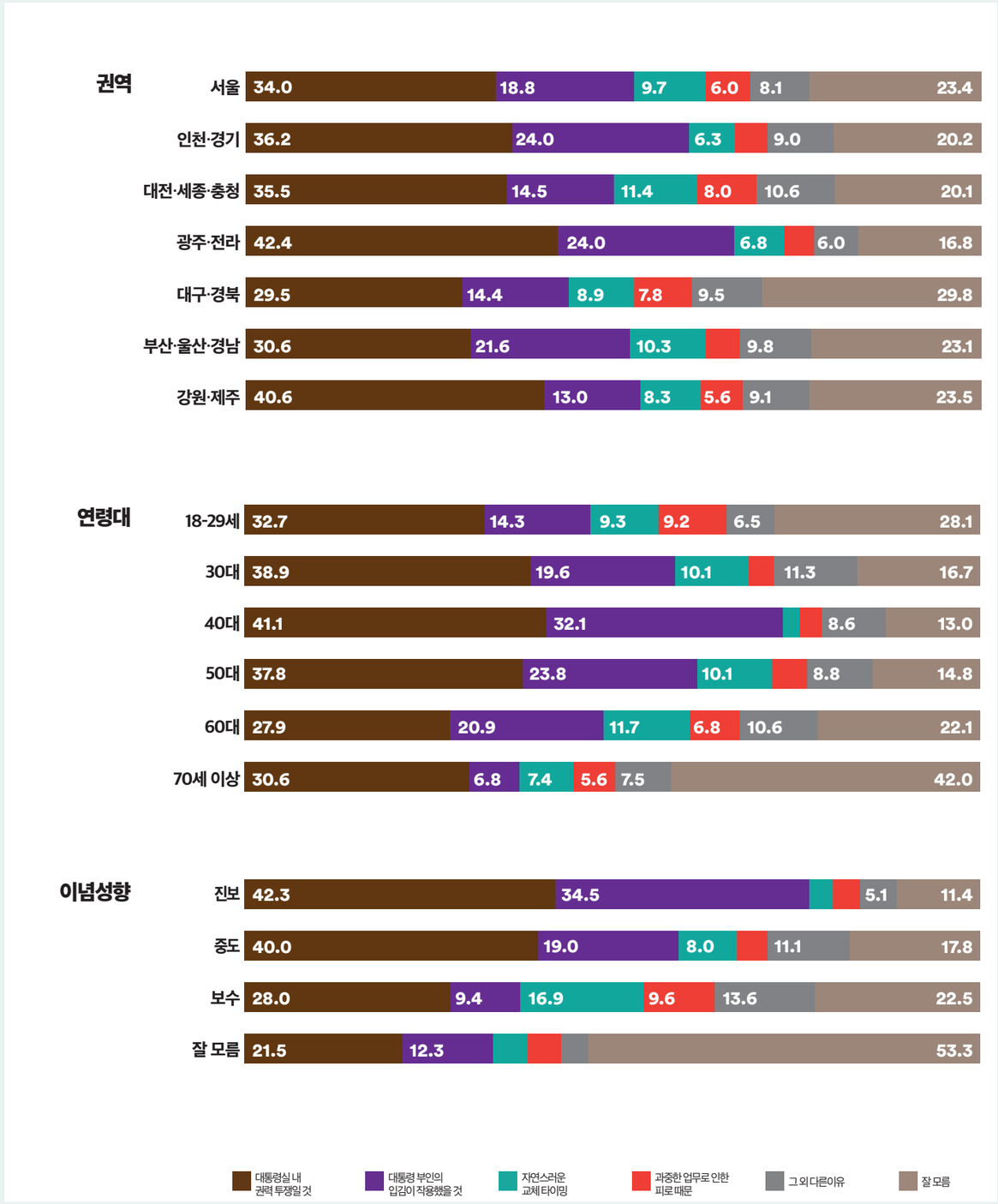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정치·사회 현안**

## 혼돈의 외교·안보 라인

Q.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와중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연속 경질 또는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대통령실 내 권력 투쟁'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
70세 이상 연령대의 경우, 응답 유보의 비율이 42.0%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음
국민의힘 지지층(31.8%)과 보수층(22.5%)의 응답 유보 비율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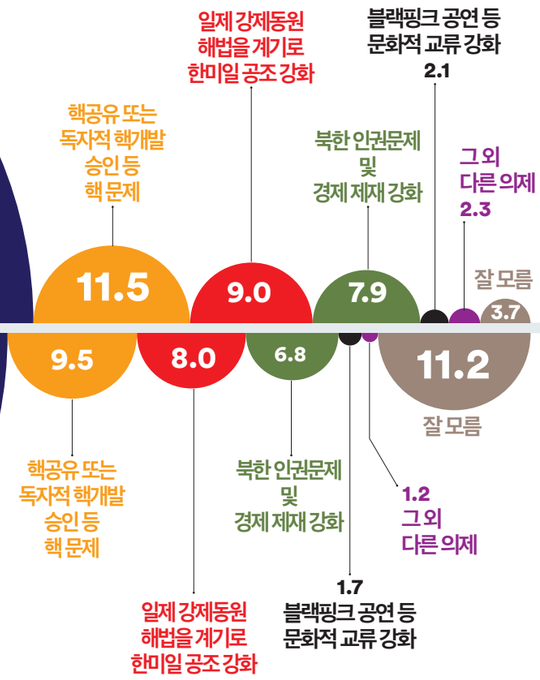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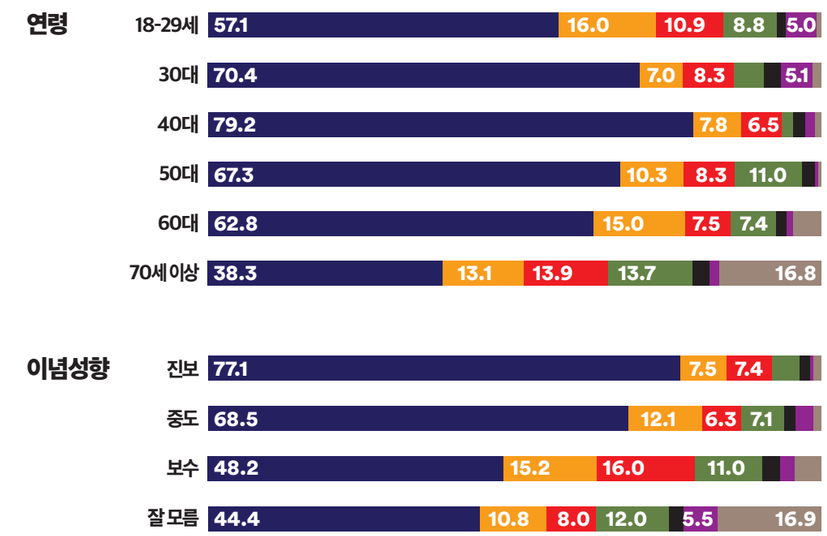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 미국 국빈 방문의 의제

Q.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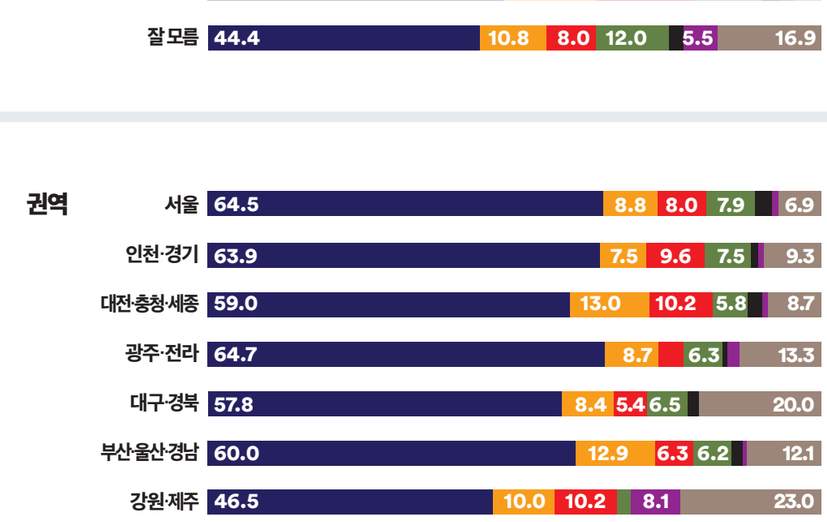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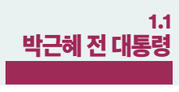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10명중 6명이 '경제 현안'이라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경제 현안'을 꼽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핵 공유·개발 등의 핵 문제'란 응답이 10% 중 ·후반대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ARS 조사의 18세~29세 남성층(핵 공유·개발 등의 핵 문제 22.0%)에서도 같은 특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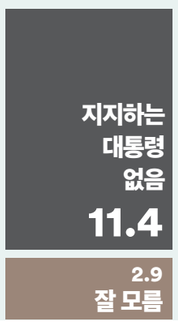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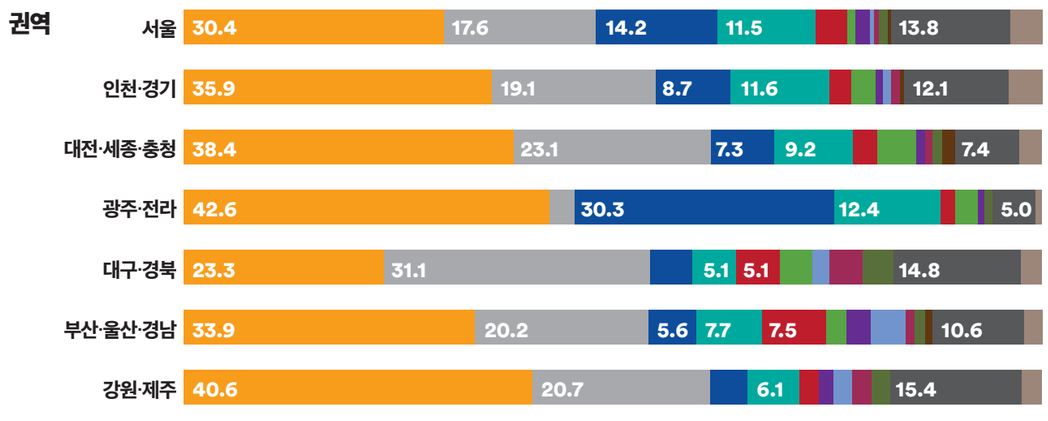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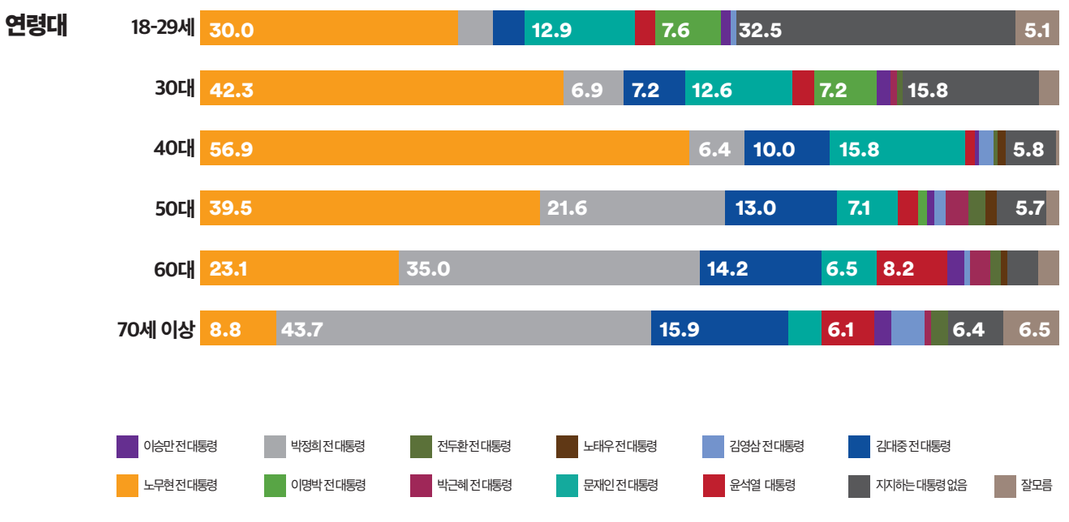
## 역대 대통령 호감도

Q.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 FOCUS -중도층

## 중도층의 민심 - 정당지지도•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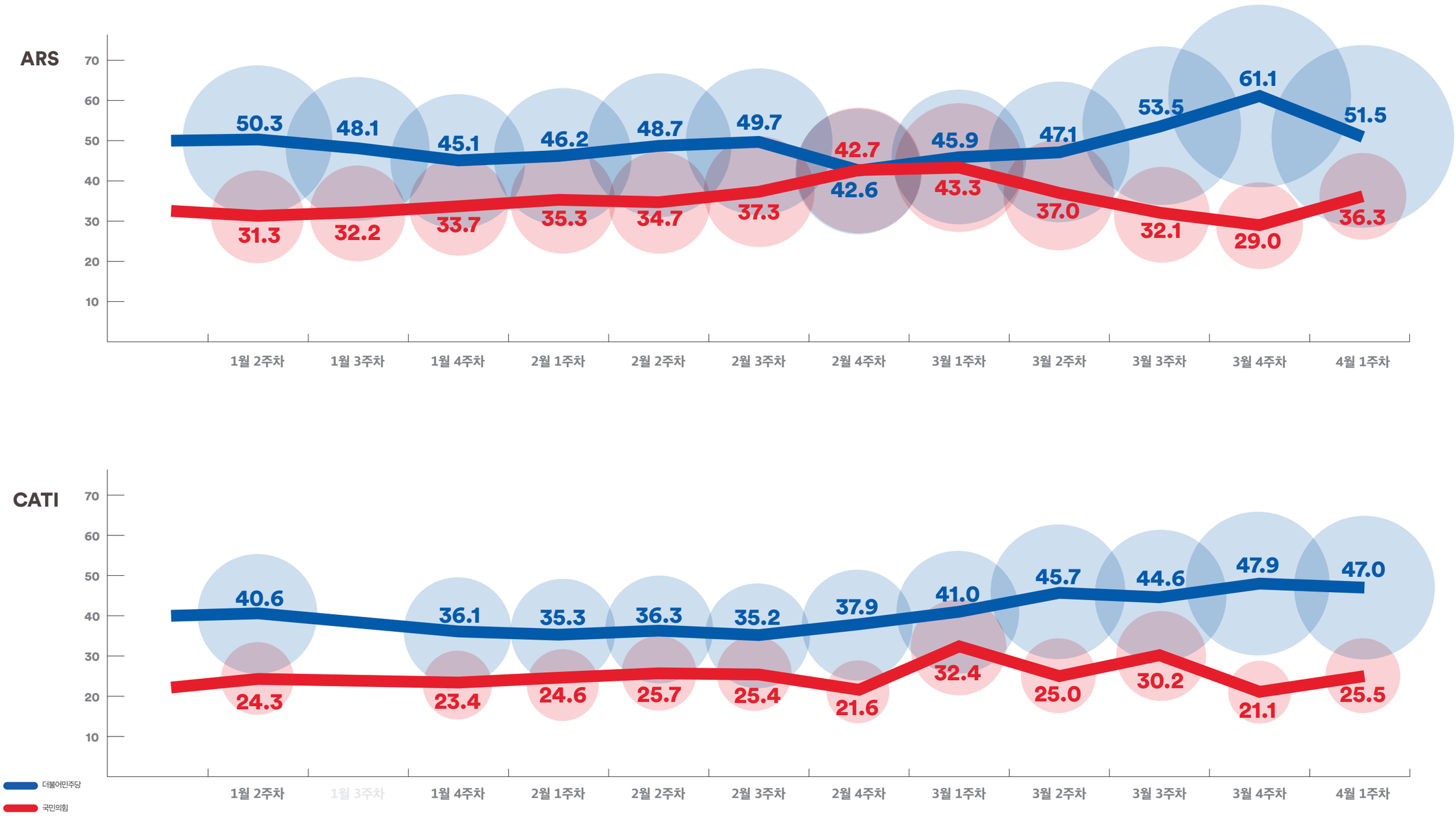
2023년 조사된 데이터 중
중도층의 정당지지도와 국정지지도를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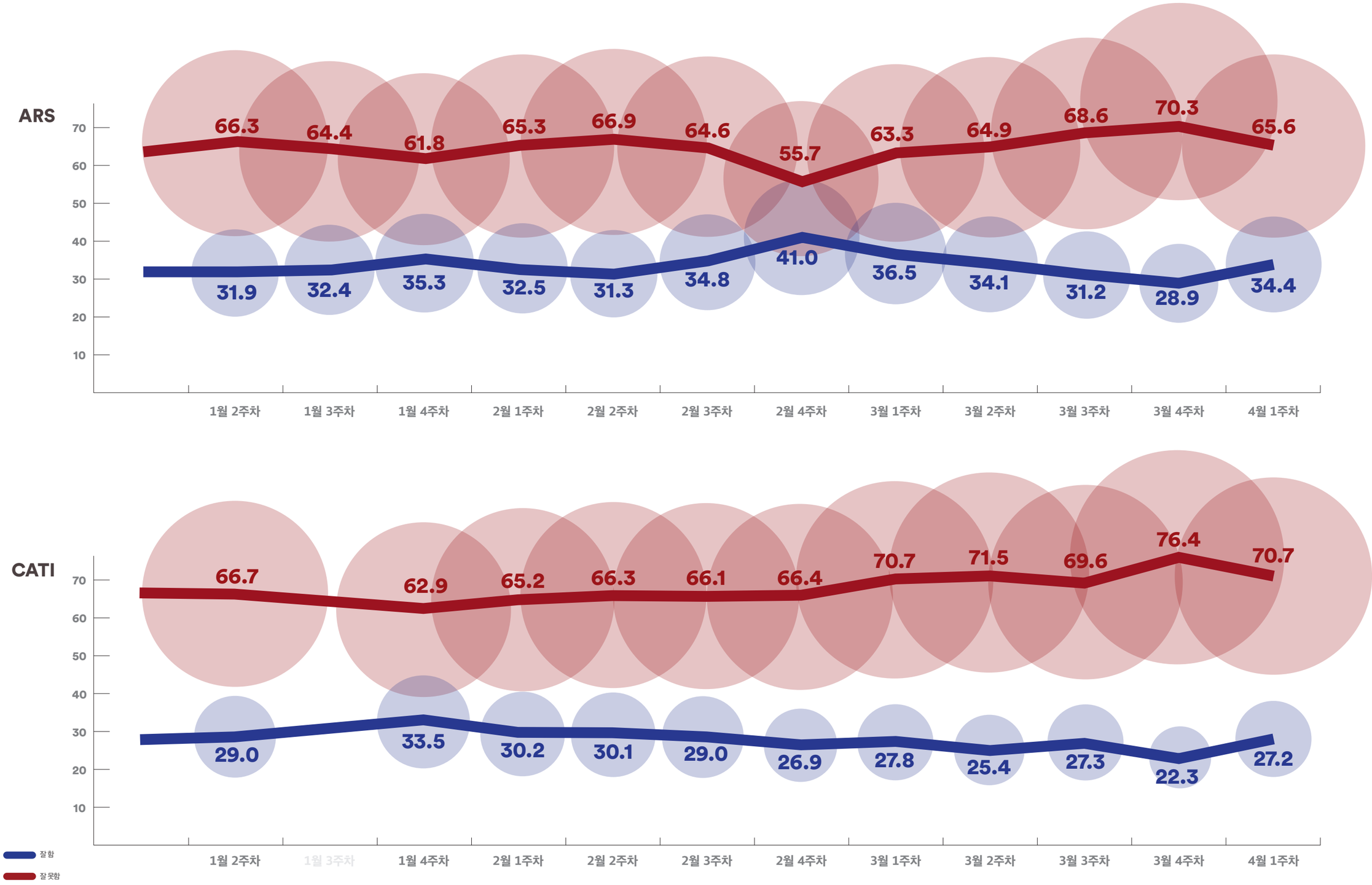
**시계열 그래프**

## 2023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변화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시계열 그래프**

## 2023년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 변화



REPORT #202304_01

# 여론조사꽃 제33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